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5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UNE 1974

### 흥겨운 "한국의밤"잔치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푸짐한 모금.

한인회관 설치위원회(회장 김현중)가 마련한 "한국의밤"잔치는 6월 8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씨애틀센터내의 NILE TEMPLE HALL에서 150여명의 교포와 미국친구들을 모시고盛大하고 흥겨운 잔치를 마련했다. 유재전씨 사회로 진행된 "한국의밤" 프로그램은 유명한 아리랑밴드와 십여명의 교포 가수들의 노래로 분위기를 즐겁게 했으며 무료 제공된 맥주, 음료수(7-up, Cola 등) 안주 등은 한결 푸짐하게 했다. 사회를 이어받은 김현중 회장의 변사조의 재담으로 회관건립에 필요한 현금을 호소하자 즉석에서 거두어진 \$1,116의 성금은 자리를 같이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날 지불하신 분들의 명단은 뒷면 참조) 특히 이날밤에 다코마거주 교포들의 많은 참석과 함께 거액의 성금은 주최자측에서 흐뭇해하고 있다. 이로써 한인회관 설치기금은 현금 \$5,600과, 기부를 약속받은 금액 \$4,990을 합치면 총계 \$10,590로서 첫 단계 목표액인 1만불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보관중인 현금은 송충래씨의 요청에 의해 연 6%의 이자를 받아 기금에 보태기로 하였다.

### AAAC에

김형진씨 추천키로

와싱턴주 지사직속 아세아문제 담당부(Commission on Asian American Affairs)에서는 한국대표에게 한 자리를 더 늘려달라는 한인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인선을 앞두고 한인회에 추천을 의뢰해 왔는데 지난 5월 18일엔 이사회 임원회의 합동회의를 가지고 현재 한인회 재무인 김형진(James H. Kim)씨를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대학 재학 시절에 전 미국 대학생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5등에 입상한 판록을 가진 김재무는 현재 은행(N.B. of C.) 국제 금융부에서 일 하면서 민주당 West Seattle 지부당 대의원으로 도 활약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넓은 우리 교포사회에서는 드물게 보는 인재이다.

### 씨애틀 - 타코마 친선 축구시합

오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와싱턴 대학 축구장에서 한인회의 변중행사인 씨애틀, 타코마 지역 교포친선 축구시합이 열린다. 금년부터는 우승팀에게 한인회장의 트로피가 수여되며 참가선수들에게 음료수도 준비되고 부상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보험에도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날 시합이 끝나면 대 벤쿠버 친선 경기

에 대비 야구, 배구 선수단을 조직할 예정인바 많은 교포들의 성원과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제 2회 「아세아인의 날」

타코마에서 성황리에 마칩.

타코마에 있는 Asian American Alliance가 주최하는 제 2회 「아세아인의 날」 기념행사를 5월 25일 Tacoma Community House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한국측은 부인회 주최로 이 병원씨가 이끄는 민속음악과 춤, 태권도 시범(이진호 6단, 왕현철 3단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윤은자양의 꽃꽂이도 선보였고 특히 타코마 부인회에서 정성드려 맛있게 만든 음식은 줄지어 늘어선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선물이었다. 타코마에서 시작된 「아세아인의 날」이 범와싱턴주의 행사로 발전될 날을 기대해 본다.

### 한인회 비영리단체로

IRS에 면세신청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지난 3월 회칙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과거 6년간의 재정상태를 종합정리하여 미연방세무서(Internal Revenue Service)에 비영리 단체로서 Tax Exempt Status로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던바 IRS 씨애틀 지국에서는 그 서류를 심사한후 Washington D.C.에 있는 본부에 그 최종결정을 의뢰하였다고 한인회에 홍보하여 왔다.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서 IRS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으면 한인회에 기부한 회원에게 그 기부금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체인 한인회로서도 아무런 세금없이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면세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 김형진씨의 수고가 많았다.

### 한인회 새 편집에

곽종세씨 취임.

그동안 한인회 편집으로 수고를 해오던 이 석복씨가 개인사정으로 임원직을 사퇴하였는데 그 후임에는 곽종세씨가 5월 31일부터 취임하여 회보편집 및 주소록 발간을 위해 일을 시작하였다.

### 씨애틀 - 벤쿠버 친선

피크닉 개최 공고

제 6회 씨애틀-벤쿠버 친선 피크닉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모두 오셔서 하루를 다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

시일; 1974년 6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부터.

장소; Woodland Park  
N. 50th St. # Green lake Way N.  
Seattle, (뒷면 약도 참조)

순서; 3면 기사 참조

1974년 6월 7일  
한인회장구 법회.

# 人間誤植

-유재건-

한인회보 4월호에 게재된 한 만필박사의 글 "파리다리와 인지위탁"을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회보 편집자의 정중한 정정기사가 꼭 짚조각 발표되어, 피차에 실수를 지적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해의 문이 열리고 보다 깊은 협력의 길이 트이는 아름다운 의사교환을 보고 흐뭇함을 느꼈다.

활자의 오식때문에, 혹은 글씨의 필이나 활자의 가감때문에 야기되는 오해나 에피소드는 인간이 글로 의사표시를 시작한 이래 항상 있어온 것 같다.

영국의 어느 유신론자가 신의 존재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가운데 "Now here is God" 이라고 결론을 맺은 것이 인쇄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Now here" 가 "No Where" 로 (NOWHERE = 띄어쓰기의 문제?) 오식되는 바람에 "No Where is God" 로 변하여 일약 당당한 무신론자로 오인되었다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년 자유당 권하사절에 어느 일간신문이 大統領令을 "犬統領令"으로 잘못 인쇄하여 제법 파문을 일으킨 전례가 있

다. 그야말로 글자 하나의 위치 때문에 유신론자가 무신론자로 오해되고 불침(不請)의 짐 하나로 한 나라의 원수가 犬公들의 수명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기실 상당한 오해와 실례, 그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 만은 사실이다. 어쨌든 미스프린트는 크고 작고간에 글을 쓰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척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일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활자의 오식이나 미스프린트는 때때로 애교도 있고, 터지는 독자가 알아서 바로 잡는 흥미도 있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그 글의 인상이나 농도를 한층 짙게 하는 수까지 있으며, 또 훗날에 정점으로 사후치료를 할 기회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활자의 오식이나 미스프린트보다는 인간이라는 이름의 만물의 영장들의 오식 - Misplacement 라고나 할까? - 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본 "No Where" 나 "犬"에 비할바가 아니다.

"저재적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정반대 현상을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 자리는 나 아니면 아무도 앉을수 없다고 믿는 피대망성적인 생각이 그것이요,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키미를 푹 떴고 주저 앉아서 깔고 뚫기는 불명치한 뻔뻔함이 또한 그 예이다.

"본분을 지키라", "본수를 말라", "주제를 알라"고 하는 수신강화 같은 교훈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온 우리니 만치, 너무 지나친 이와 같은 도덕훈에 일종의 반발작용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어차구니 없는 일들을 보고 접할 때마다 웃음긴 고사하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부끄러운 얘기로, 학자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재주도 미흡한 주제에 학위공부를 해 보겠다고 수년간씩 가족들 고생시키며 미련을 떨고 있는 나 자신의 꼴이 한심할 때가 있다.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높으신분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할새, 불법행위가 우리를 웃긴다. 이역만리 타국땅에 민족의 얼을 심고 성장하는 한인교포사회에 참신한 이며지를 심겠다는 각종 단체의 어른들이, 공익을 제일의로 부르짖는 언론기관의 책임있는 어른들의 하지는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시는 성스러운 직함을 가진 어른들의 광야에서의 외침이 우리를 머리털 가우뚱 하게한다. 하기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의 오식" 이라고 한 어느 철인의 말씀을 생각하면, 웃으실것도 슬플것도 없겠지만 ....

# 장예준 상공부장관 시애틀 방문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6월 3일에 개최되는 한미 상공부장관 회의에 참석차 국제협력차관보 박필수씨, 금성사 사장 박승찬씨등 일행 11명과 같이 와싱턴 D.C.로 가는 길에 6월 1일 시애틀에 들러 한국무역진흥공사 시애틀 지소 (지소장 이계홍)의 업무현황 브리핑을 듣고 스포케인시에서 열리는 Expo '74의 한국관을 시찰하고 6월 2일 시애틀을 떠났다.

# 합병준 주미대사 시애틀 방문

합병준 주미대사께서 부인을 동반하고 5월 4일 스포케인시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개최식에 참석하고 그 이튿날 5일 일요일엔 한인회가 마련한 환영 만찬회에 참석, 한인회 임원 및 교포유지들과 자리를 같이 했으며, 저녁식사후엔 와싱턴 대학교 학생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일반교포 및 학생들과 정치, 경제, 문화 제반분야에 걸친 친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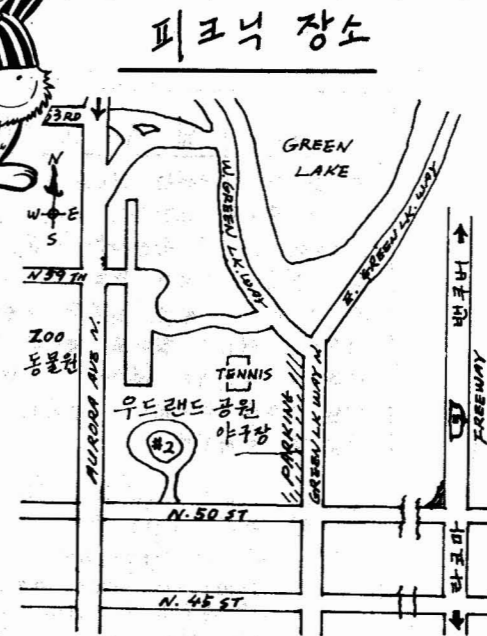
# 한인골프대회

1) 지난 5월 25일엔 와싱턴주 대오리건주 한인골프대회가 포틀랜드 Colwood National Golf Course 에서 개최되었는데 각 팀에서 14명씩 도합 28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다툰 결과 오리건 팀이 단체 개인상을 모두 독점해 버렸다.

2) 시애틀 - 밴쿠버 친선 골프대회가 오는 6월 29일 시애틀에서 있을 예정인데 참가 희망자는 클럽회장 안병명(전화: 522-1941)에게 연락 신청하길 바라고 있다.

# 시애틀 - 밴쿠버 친선 피크닉 순서 안내

시일; 1974. 6. 30. 일요일.  
 장소; 우드랜드 공원  
 접수; 10:30 - 11:00  
 개회; 11:00 - 11:15  
 1. 환영사. 시애틀 한인회장 구범희  
 2. 인사. 밴쿠버 한인회장 김홍권  
 3. 축사.  
 예배; 11:15 - 11:45  
 점심; 11:45 - 1:00  
 운동경기; 1:00 - 4:00  
 남녀 배구, 남자 야구  
 남녀 탁구, 여자 줄다리기  
 어린이 경기, 노인경기  
 기타 친선 경기  
 행운상추첨.  
 수상 및 폐회.



# "편집자 코너"

한인사회의 動靜을 살펴 회원 여러분에게 바로고 밝게 알리려는 것이 본 월간 한인회보의 발행목적이고 보면 바빴을 이어받은 편집자로서 과연 그 막중한 사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7년의 年輪을 쌓은 한인회를 대변할 수 있는 한인회보 발간에 봉사할수 있는 조그만 성의가 엄청난 勞를 끼칠가 두렵다. 연이나 개인사정으로 이때껏 수고하시던 이석복씨의 사퇴를 유감으로 여기며 건투를 빈다.

한인회보는 누구만을 위한 회보가 아니고 누구든 반가워하고 친근감을 줄수 있는 회보가 되어야 겠기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가식없는 충고 있기를 바란다.

# 아버지 교육보험이 저희들의 있는지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익배당이 많은 프루덴셜보험!

\*자동차보험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단체 보험  
 \*저축 보험 \*화재 보험  
 \*교육 보험 \*사업 보험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특별 대리인 안 병 용

PHILIP BYUNG-YONG AHN  
 Special Agent

The Prudential Insurance Co. of America  
 Prudential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  
 201 Broad St., Seattle, Wash. 98121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INSURANCE OF ALL KINDS FOR -  
 CAR + LIFE + FIRE + HOME + BUSINESS  
 HEALTH + BOAT + BOND + MOTORCYCLE

시애틀 지역 가옥 토지 매매 알선 및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For Buying, Selling, Counseling of all types of Homes, Acreage and Commercial Properties in Seattle Area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6308 212th S.W. Res. 778-1972  
 Lynnwood, WA 98036 Bus. 774-4176

김치 한국집

KOREAN FOOD PRODUCTION  
 grocery store

우아지마야 앞 · 514 6th AVE. S., SEATTLE, WASH · PHONE 682-2992

#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1896

MANDARIN CHINESE AND KOREAN RESTAURANT

# 비원

The Tea Leaf

TUE - THUR & SUN 11:00 am - 9:00 pm  
 FRI & SAT 11:00 am - 10:00 pm

528 S. GARFIELD STREET, PHONE (206) 331-5237  
 TACOMA, WA 98444

대표 이 평 순

# “ 動 靜 ”

- 윤 심원 목사 (시애틀 한인연합복음교회 목사) -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20차 국제 농업생산자연맹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귀임.
- 김 남길 씨 - 지난 5월 18일 예쁜 딸을 낳아 1남 1녀의 아버지가 된 산모도 건강하니 다행.
- Eddie Yoon 씨 (와싱턴 주정 법원판인턴) - 지난 5월 2일 첫딸 낳음.
- 이주영, 민병갑 - 타코마에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AGENCY) 지점을 개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주소는 10307 Bridgeport way S.W. Tacoma, Wa. 전화 588-0333

##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사회에의 바랍직한 제안, 정부당국에의 제안,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성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실때나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을 맡은 좌중세 씨에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Tel. 632-5322

## 주소록 작성과 배부

본 한인회에서는 1974년도 와싱턴주 한인명부를 작성중인데 새로 오신분이나 주소도 이사하신분들을 위해서 주소록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용가치가 높은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같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회보를 받아 보신분은 누구나 아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셔서 오는 7월 10일까지 보내 주시면 보내주신분에게는 새주소록이 인쇄된 대로 곧 부쳐 드리겠습니다.

성명: \_\_\_\_\_  
Name Last First Middle  
한글 \_\_\_\_\_  
비우라성명 \_\_\_\_\_  
주소: \_\_\_\_\_  
Address \_\_\_\_\_  
전화번호: \_\_\_\_\_  
 전화번호를 명부에 실리기 원치 않으시면 X 표시를 하십시오.  
 주소록과 회보를 아래에 적은분에게도 보내 주십시오.  
성명 \_\_\_\_\_ 전화 \_\_\_\_\_  
주소 \_\_\_\_\_

## 교회소식

1. 시애틀 한인 협재교회 (최용걸 목사시무)  
6월 16일 (일요일) 우들랜드 공원에서 피크닉 (야외예배) 을 가게 되는데 예배시간은 1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아동들의 게임과 시상이 있으니 많은 교포교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지난 5월 4일 (일요일) 함 병준 주미대사가 예배를 마친다음 킴 교회에 참석, 많은 교포교인들과 대화를 나눔.  
2.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장남석 목사시무)  
5월 17, 18, 19 연 3일 동안 장영출 공군 군목과 박종기 목사를 부흥사로 초청, 타코마 지역에 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특히 음악순서는 많은 흥미를 주었다.

## 회비 납부자 명단

-6월 10일 현재-

- |                     |          |
|---------------------|----------|
| 34. 조군자             | \$ 10.00 |
| 35. 허정순             | 10.00    |
| 36. Jong OK Radin   | 10.00    |
| 37. 김전자             | 10.00    |
| 38. Eugene J. Choy  | 5.00     |
| 39. Thomas A. Kim   | 10.00    |
| 40. Tai Yong Yum    | 10.00    |
| 41. Chong Kon Stout | 10.00    |
| 42. Philip B. Ahn   | 10.00    |
| 43. 고 광선            | 10.00    |

### 회비 납부 요망

한인회 재부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불이며 (단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불)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본회보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때는 수표나 "마니오더" 를 이용하고 현금은 절대로 동봉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고.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때로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진 커하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9830 44th Ave S.W. Seattle Wa. 98136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 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 \_\_\_\_\_, 도합 \$ \_\_\_\_\_ 을 동봉하셨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축 ! 졸업 ”

교포사회에 자랑스런 얼굴들.

우리교포 자체분 중에는 이번 6월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교포사회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은 본회 편집부로 알려진 소식을 종합한 것이다.  
● 서문상씨의 아들 춘원군 (Chunon, Tom) 은 Roosevelt High School 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Harvard Univ. 에 입학, 물리학을 전공할 예정인데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서 주는 Full scholarship 으로 세계 일주여행도 하게 될것이라고. 취미는 바이올린.  
● 한만섭씨 아들 진상군 (Jin Sang) 은 Renton 에 있는 Hazen High School 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Harvard Univ. 에 입학 허가와 아울러 \$3,000 의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는 희소식.  
● 남궁모씨 딸 말말 「지나」 양 (Grina) 은 Shoccrest High School 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Univ. of Wash. 에 입학. 취미는 피아노.  
● 박경주씨 딸 순미양 (Soonmi Mary) 은 Roosevelt High School 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John F. Kennedy Memorial Scholarship 을 받아 Univ. of Wash. 에 입학하는데 특히 재학시에는 Girls Club 의 부회장, Latin Group 의 회장을 역임하는등 다방면에 활약이 많았다.  
● 문광호씨 딸 영란양 (Young Moon) 은 Kings Garden High School 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Univ. of Wash. 에 입학하여 약학을 전공할 예정.  
● Mrs. Chin Sook Hughes 의 아들 Ronald 군은 Franklin High School 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진학 예정. 특히 아코디온, 섹스폰, 피아노등 여러가지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 “ 대한투자 및 무역촉진 ”

한국경제사절단 시애틀에서 강연회


원활한 대한투자 촉진및 무역을 꾀함으로써 한미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경제사절단 일행 6명이 지난 5월 30일 시애틀에 도착, Rainier Club 에서 오찬을 겸한 강연회를 가졌다.  
전 상공부장관을 지낸바 있는 박흥준 경제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백선엽, 장상태, 조동희씨와 주미대사관 경제담당공사 양문세 씨 등으로 구성된 이 경제 4절단 일행은 강연회가 끝난후 한국무역진흥공사 시애틀 지소장 이기홍씨가 베푼 만찬회에 참석, 교포들과 환담을 나누고 이튿날인 31일에 다음 강연회 개최지인 뉴욕으로 항발했다.

## E.O.C. 에서 김흥기씨 활약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 는 Asian-American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 사모아계) 을 위한 직업알선과 또 직업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시애틀 시당국과 와싱턴주 정부와 계약을 맺고있다. 직장대상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와싱턴주 전역에 걸쳐 여러종류의 직장 명단들이 정리되고 있다한다.  
E.O.C. 에는 이현기씨가 이사로서 계시고 김흥기씨가 한인 담당상담역 (Korean Counselor) 을 맡고 있는데 사무실 주소는 4726 Rainier Ave So. Seattle, Wa. 전화 725-8200이며 상담시간은 월,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며 수요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 까지인데 특히 새로 이민 오신분들의 취업문제와 직장상담에 대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으며 영어부족으로 곤란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하기 바라고 있다.

## “湖畔”의 탄생에 앞서

아름다운 호수가 있기에 메말라가는 우리 마음을 달래 주는줄 모른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나 분명한 권태로움과 이기적이며 배타적이고 각박한 異國生活에서의 지루함이 있어도 몇몇이 어울려 호숫가에 앉아 도시락이라도 펼쳐놓고 사투리섞인 억양으로 내 나라 말을 마음껏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  
블고기에 갈비라도 굽는 날이면 흰둥이, 검둥이가 그 큰코를 벌름거리며 킴을 골격 삼키면서 모여드는 끝은 속된 말로 “똥파리 물려들듯” 한다. 풋장수에 된장, 고추장 찌개라도 끓일때엔 고깃국을 불끈치고 모반상을 찌프리고 피하리라. 하지만 우리사 입물 크게 벌리고 보자기 삼주루 실례를 한다고 해서 결눈질 할것은 없으려다.  
아름다운 와싱턴주의 호수가 (한인회보 칼럼 湖 畔) 에선 한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국인이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이야기 할수 있고 주고 할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려 한다.  
가끔 목판에다 “뚝” 잘라서 “푹푹” 불면서 몇치기 하듯 투박한 맛도 있어야 겠고 된장국에 팜보리밥도 못먹는 슬픈 사연도 좋고 어린이 불기 견고 회초리 드는 매서운 맛도 있어야 겠다.  
소외된 인간, 소외된 집단처럼 「소외된 가치」 만큼 비참한것은 없다. 한국이란 소외된 개개인과 한인회란 소외된 집단이라고 파란눈이든 붉은눈이든 그렇게 보여왔고 연이나 같은 검은 눈동자속에도 그렇게 비쳐 왔지않은가? 이제 우리 모두 호숫가에 모여 오손도손 꿈을 이어가는 소리를 호수에 던져보자. 그래서 파장이 넓게 굵게 퍼져서 와싱턴주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한국인의 예지를 보이여 긍지를 갖자. “세



특별 할인권  
discount coupon  
불고기 (Bulgogi)  
\$ 3.30 - \$ 2.50

## 뉴-코리아식당

New Korea Restaurant

순 한국 음식과 한국음식 새 주인의 새 경영방법 여러분의 후계실

6815 roosevelt wy n.e. seattle, wash. 98115  
523-7661

ORIENTAL ARTS & FRAMING  
**BOOIL ARTS**

▶ 동양화 · 판화 · 탁본 · 각종 액자 제작 ◀  
in pioneer square area • CALL 624-8930 •  
83-b s.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HOME GROCERY**

500 MINOR AVE. N.  
SEATTLE, WA. 98109  
623-0074

한국-시암 인형, 목자 방직 카비, 각종세탁 공예품 도산대 \* 개집 특별 할인 20%



# 사랑의 九題 - 박암-

사랑은 형편을 따라서 하는것이 아니다. 사랑은 형편의 여하를 불구하고 시종일관 하는것이 사랑이다. 불행에 죽을때에도 애인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죽을때 웃고 죽는다. 각(黨)이란 다른게 아니라 곧 사랑인것이다. 편안한 생활은 문화생활도 질서있는 생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데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의리가 있고, 중상이 있고, 모략이 있고, 혼란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문화, 무슨 질서, 무슨 평안함이 있을수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생활, 무슨 사랑이 있을수 있겠는가. 집도 기우러진다고 느껴질때 바로 잡아야지 이 시기를 지나 「벌써 기우러 졌구나」 할 때는 아무리 능한 목수라도 바로 잡을 길이 없다. 이 집을 결국 기우는대로 내 버려두거나 허물거나 하는 수밖에는 없다. 집은 기우러진다고 느낄때 바로 잡아야 한다. 인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아버지의 교훈. 아무리 도적질에 능란한 도적도 아버이로서

자기 자식을 가르칠때에는 '너도 나모양으로 능란한 도적이 되어 잘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나는 글 잘 배워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부자가 생기고 회원이 있어서 회장이 생기고 국민이 있어야 권력이 생긴다. 아프리카의 아직 독립을 못한 어느 민족 지도자가 압제자의 압박아래 죽으며 한 말 「비록, 나의 생명을 네가 빼앗아 간다고 해도 자유와 연혼은 내것이다.」 「우리는 서서 죽지 무릎 꿇고 살고자 아니한다. 독립 없이 어떻게 평화를 말할수 있느냐.」 얼마나 비참한 말인가. 페부를 찌른다. 공자님 말씀  
 \*\* 아침에 도를 깨달을수 있다면 저녁에 죽는다해도 한이 없다.  
 \*\* 옳은 일을 앞에 보고서 행치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 내 몸을 죽여서라도 어진 일(仁)을 행해야 하느니라.  
 \*\* 자기가 원치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를 하지 말라.  
 \*\* 자기가 출세하고자 할때 남도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 천국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랴.  
 \*\* 네게서 나온것은 네게로 돌아간다.  
 악은 밤에 생기기 세상을 어둡고 슬프게 하고, 선은 밝은 대낮에 생겨 세상을 밝혀 기쁘게 한다.  
 \*\* 거울에 때가 묻은것을 보면 꼭 마음의 때를 보는것 같아 아주 마음이 깨으르직 하다.  
 인간은 인간인 까닭에 부정(不正)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은, 올바른것은 진실한것이고, 밝은것이고 기쁜것이고.  
 부정은, 올바르지 못한 거것이고 어두운것이고 슬픈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부정이 있어야 하는가. 인간은 인간인 까닭에 부정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은 평안을 소원하는데 부정이 있고서야 어찌 평안히 살수 있겠는가.  
 불의의 재난과 불행은 부끄러운 사람에게 는 아니오나 이 세상 모든 유생은 다 고생을 참고 견디는 까닭에 아름다워지고 풍부해진다.

# < 나의提言 >

이 규룡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라제할때 까지 수많은 종류의 필수품들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이 모든 생활 필수품들은 문화, 문명, 통신등의 발달에 따라 보다 아름답고, 쓰기에 편리하고 지나기에 적합한 상품들로 개선되어 감을 느낄수 있으며 또 어떤것은 역사가 바뀔때 국보로 혹은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희귀한 것도 있다. 인간은 원래가 소유욕이 강하여 필요한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려 할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물건에 대해서 소유욕 이전에는 무관심 상태에 있던 것이라도 내 소유물이 된 후에야 비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관 하려는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이렇듯 주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것을 내것과 같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데서 무한한 Idea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것이 제언하고자 하는 초점인 것이다.  
 일전에 어느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Idea를 주셨는데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필수품인 전화기의 송화기 부분에 프라스틱 덮개를 씌우고 그 프라스틱 덮개내에 Tablet 향료를 넣으면 기분도 상쾌해져나와 위생적이어서 좋을것 같다는 그럴듯한 것으로 채택 여부에는 검토중에 있다. 이같이 Idea란 멀지않은 즉 각자가 몸 담고 있는 주위환경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니면 무심코 버려야 할 것들 중에서 뜻 밖에도 발견되는 것이니 한번 더 관심을 갖어 보는데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한민회의 숙원인 회관 건립에 있었어도 여러 뜻 있는 교포들의 성금으로 많은 돈을 모았다고 들었는데 News의 매개체인 각종 신문이나 잡지, 그밖에 수없이 배달되는 광고 용지등은 읽고난 후에는 치치하기 귀찮을 정도로 쌓이는데, 이것을 각 가정에서 버리기전에 수집하면 적지않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의견도 일종의 Idea라 볼수 있겠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Idea는 각 계 각층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었을 경우 최고는 50만원의 상금까지 있으니 떠오르는 Idea가 있으신 분은 설명할수 있는 자료로서 사진, 견본, 설명서, 어느것이라도 좋으니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현금 지불하신분

*Paull H. Shin	\$ 80.00
*Dan T. Lee	100.00
김 실동	20.00
*서 두수	20.00
Spencer Kim	20.00
Mrs. Jung Sook Digiovanni	15.00
Mrs. Chong Pun McCauley	10.00
Mr. Chull ShiK Chong	10.00
강 명자	5.00
*전 계삼	11.00
고향식품 (타코마)	5.00
Mrs. Knowles (타코마부인회장)	30.00
타코마 부인회	50.00
Mr. Lee (학생)	10.00
기라 (성명미상)	40.00
도합: \$426.00	

## 기부를 약속하신분

김 길랑	\$ 200.00
이 규룡	100.00
Lee's wigs	50.00
*Five seas	50.00
Seattle Golf Club	30.00
*구 법회	50.00
*이 창희	200.00
*전 계삼	10.00
도합: 690.00	
* 종전에 기부 또는 약속하신 분으로서 이번 행사에 또 특별기부를 하신분. 승권하실때에는 투표에 KOREAN ASSOCIATION BUILDING FUND라 명기하시고 본 위원회 재무 송중래씨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Mr. C. N. SONG 3417 39th Ave. W Seattle 98199	

# TACOMA

#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Agency

이만수속 무료봉사

모국방문 특별할인

초청장및재정보증서 작성

주 3회

항공표 월부판매

(206) 588-0333 (24 HRS)

10307 BRIDGEPORT WAY, S.W. TACOMA, WASH. 98499.



1310 MERCER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9

## 바느질공 모집

「퍼시픽 트레일」 운동복 제조회사에서는 한국인 부인종에서 바느질에 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하길 원하고 있다. 연락하실분은 아래주소로 ---.

POWER MACHINE SEWERS

The largest manufacturers of outerwear West of the Mississippi has openings for fulltime experienced operators. Tired of short term work & long term layoffs? Our production is 12 months long. The best of working conditions, frings benefits. Piece work offers the highest possible pay rate for the capable operator. Ample parking, 1/2 block from b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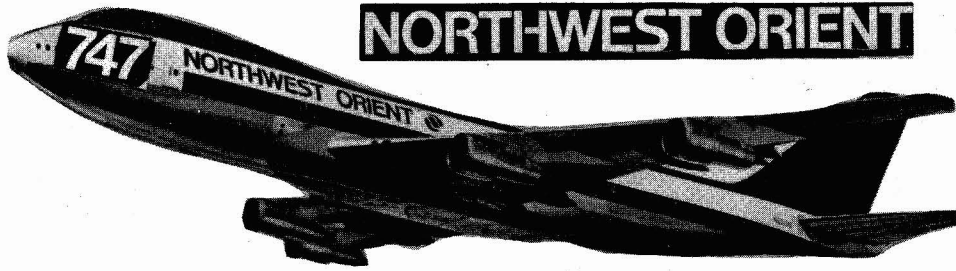
PACIFIC TRAIL SPORTSWEAR

1310 MERCER 622-8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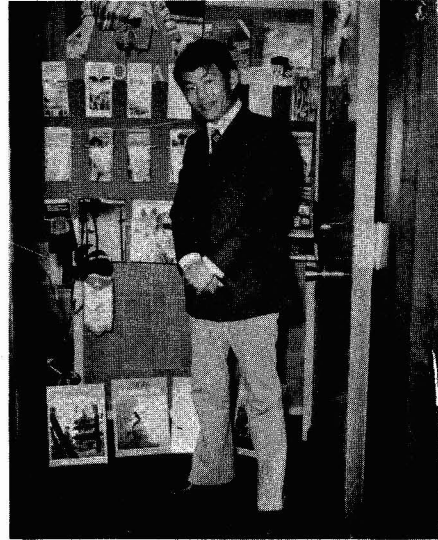
Equal Opportunity Employer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김 길랑



- ※.국내외항공로  
요금 제공.
- ※.정기요금모국  
방문.
- ※.각종보험.
- ※.이민항공로.



603 Stewart Street - Room 606 Lloyd Building

대표: 김창성

624-2227  
624-2228  
RES. 776-7115

# 김의이행사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